

광주 남구, 고독사 예방 ‘으뜸 효 안심동행 앱’ 서비스 실시

핸드폰 미사용시 가족 등에 긴급 구조 메시지

1인 가구·장애인·취약계층 등 누구나 사용 가능

광주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 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남구는 20일 “1인 가구를 비롯해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일정기간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 구

호자로 등록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 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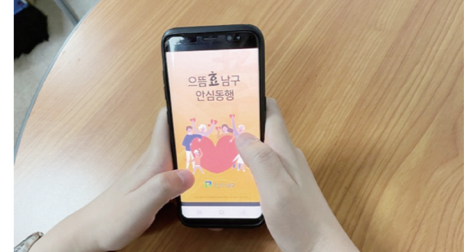
니라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 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앱만 다운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원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으뜸 효 남구 안심동행’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은 뒤 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긴급 구조자로 등록하면 된다.

또 안심동행 앱 사용자가 휴대전화 미사용 기간도 지정할 수 있다.

남구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 실시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많은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소외·단절된 우리 이웃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3만4,367세대로, 전체 가구수 9만3,908세대의 36.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임산부 등 영양 건강 밑거름 지원

대상자 내달 31일 까지 모집

무안군은 7월부터 임산부·수유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하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영양지원 제도로써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수유부·영유아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상태에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들이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1차 영양플러스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2차 영양플러스 사업 진행을 위해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무안 주민이다.

신청은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 접수 등 비대면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 061-450-5053)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 심리회복 지원서비스 제공

재난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구면 용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심리지원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

리적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4명을 투입해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이나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를 돕고 있다.

대상자 김모씨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물난리를 처음 겪은 것 같다. 그 때 눈앞으로 순식간에 차오르던 물이 계속 생각이 나 아찔하다”며 “보건소에서 직접 오셔서 상담 해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는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PTSD)는 사건 발생 1달 뒤, 심지어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며 “사건·재난을 경험한 후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수면장애, 사회활동 위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자살예방 등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3560)나 국번 없이1577-0199 또는 1393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 대덕면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도배·장판, LED 전등 지원

담양 대덕면 복지기동대는 최근 도움이 필요한 가구 3세대를 방문해 도배,

장판 및 전등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기동대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봉사에서는 대상자로 3가구를 선정해 2

가구에는 도배·장판 교체를 지원했다.

한 가정은 기초수급자 가구로 전등이 망가져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 노후 전등을 LED로 교체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